

3월 인성 교육 자료

(매주 월요일 아침 시간 활용)

3월 7일

우리로 산다는 것은?

어느 농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새벽이 되면 늘 닭들이 우는데 그 날은 아직 새벽이 되기 전인데 닭들이 울었습니다. 그것도 비명을 질러가며 울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주인은 무슨 일인지 닭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600마리의 닭이 죽어 있었습니다. 원인은 금방 밝혀졌습니다. 닭장 저쪽 구석에서 닭들의 천적인 수리부엉이 한 마리가 닭 한 마리를 낚아채 여유롭게 먹고 있었습니다. 수리부엉이 한 마리가 무려 600마리를 죽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수리부엉이가 죽인 것이 아니라 닭들이 서로 먼저 살겠다고 출구 쪽으로 달려가다 압사한 것이었습니다. 수리부엉이는 한 마리만 죽였고 나머지 닭들은 동료 닭들이 자기끼리 싸우다 죽인 것입니다.

한편 꿀벌들은 꿀을 절대 혼자 먹지 않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꿀을 발견하면 벌집에 돌아와 동료들 앞에서 춤부터 추며 동료 벌들에게 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날개짓으로 알리며 소통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다른 꿀벌들이 어떤 방향으로 몇 마리를 파견해야 할지 결정하고 서로 협력해 같이 꿀을 모으고 저장하여 함께 꿀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꿀벌의 집에 천적인 말벌이 침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벌 한 마리는 꿀벌보다 대개 5-6배 큼니다. 꿀벌들은 일단 말벌 주위를 뱅 돌러가며 에워쌉니다. 그러고는 열심히 날개짓을 해서 온도를 높입니다. 말벌이 고온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5도까지 온도가 상승하면 말벌은 죽고 맙니다.

이 과정에서 꿀벌 중 몇 마리는 말벌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포위망을 풀지는 않습니다. 말벌이 죽고 나면 다시 꿀벌들은 날개짓을 열심히 해 온도를 낮춥니다. 48도가 되면 자신들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닭들은 천적인 수리부엉이의 공격에서 자신만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나도 죽고 너도 죽자”식으로 동료 닭도 죽고 자기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꿀벌들은 자기 한 몸 희생을 각오한 결과 천적인 말벌을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서울경제 2018년 11월 2일자 기사 중 일부

※ 생각해보기

1. 공동체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5개 이상 생각해 보세요.
2. 닭들과 꿀벌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3. 이 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